통일은 기적, 기적은 역사 주관자의 몫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前통일교육원장)

독일은 통일과 함께 두 개의 기적을 경험했다. 하나는 나치 전범국이 분단을 마감, 통일을 이룬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통일된 독일이 유럽 최강의 나라로 우뚝 선 것이다.

인류 최악의 비극인 나치 정권이 탄생한 때는 민주주의가 만발했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이었다. 1933년 히틀러는 공화국의 경제실정과 대공황의 파국을 계기로 보수 민족주의자들을 결집해 권력을 잡았다. 히틀러는 선동과 날조, 그리고 강한 카리스마로 대중을 압도하여 집권 12년 동안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 히틀러는 1백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 집시 등도 처형했다. 1939년에는 폴

란드를 침공하여 수 천 만명의 희생자를 낸 2차 대전을 일으켰다.

독일의 분단은 이런 역사적 죄악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었다. 전후 독일이 통일을 거론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통일부 대신에 내독성을 두어 분단의 현안을 다루었다. 국제사회는 분단된 동서독 평화공존에 암묵적인 동의를 보냈다.

1989년 초 방한했던 서독의 빌리 브란트 前총리는 독일의 통일 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 생전에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한국이 통일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런 독일이 1989년 베를린 장벽을 해체하고,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의 정치인들은 이를 '기적'이라 불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냉엄한 현실과 직면해야 했다. 서독은 매년 1천억 달러에 달하는 통일비용을 지불했고 이를 감당하는데 힘겨워 했다. 경쟁의 파고를 만난 동독 기업은 파산을 면치 못했다. 길거리에는 실업자로 넘쳐났으며 많은 예산이 동독인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 왔지만 상대적 빈곤으로 힘들어했다. '오시즈'(게으른 동독인)와 '베시즈'(거만한 서독인)라는 신조어도 생기게 되었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머릿속 장벽'이 생겼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통일 초, 독일은 갈 지(之)자 행보를 마감하고, 통일 20년 만에 유럽 최강의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자 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의 리더로서 푸틴에 강력히 맞섰고, 2013년 독일의 GDP는 유럽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가치를 택하는 독일,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나?

서독은 통일의 꿈을 행동으로 이루어냈다.

첫째, 서독은 분단된 40년 동안 동독인 400만 명을 수용했다. 서독은 동독을 탈출한 사람들을 정부 차원에서 보호했다. 동독을 떠난 모든 탈출자들은 예외없이

서독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1989년 여름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거센 반공산 저항이 일어났다. 많은 동독인들이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 체코나 폴란드로 탈출해 서독 대사관에 진입해 서독으로 이주했다. 이때 서독정부는 대사관에 진입한 동독인들을 모두 수용해 서독으로 불러 들였다. 헝가리를 경유해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는 통로를 만들어 준 것도 서독 정부였다. 우리는 어떠한가? 탈북자 3만 명에도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 하는 우리와는 대비된다.

둘째, 동독 공산정권 하에서 투옥되었던 정치범을 석방해 이주시켰다.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독일판 인신매매다. '자유를 산다'는 의미로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서독으로 데려온 프로젝트 였다. 프라이카우프는 서독 교회의 주요 사업이었다. 베를린 장벽이 건립된 직후 시작된 프라이카우프 사업은 장벽이 해체될 때까지 28년 동안 어림잡아 3만4천 여 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불러들였다. 1인당 평균 9만 마르크가 들었다.

셋째, 독일은 통일 후 동독인들을 요직에 대거 등용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현재 독일의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있다. 그녀는 총리 12년 차이며, 오는 9월 4선에 도전한다. 메르켈은 목사의 딸로 1989년 동독 무혈혁명을 이끌던 시민단체 지도자였다. 콜 총리는 메르켈을 양녀로 삼아 정계 진출을 도와 2005년 총리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독일의 11대 대통령 가우크, 하원의장 티에르제, 브란덴부르크 주지사 슈톨페, 슈타지 문서관리청장 비어틀레 등도 동독출신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남북 하나재단이 설립되어 탈북자들을 돕고 있지만 갈등과 불만이 그치지 않는다. 혹시 탈북자에게 덧씌워진 이등국민이라는 딱지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나도 살고, 너도 살자"(leben und leben lassen)는 독일의 대표적 가치이며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나치의 치욕적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이다. 이런 가치관이 2016년 시리아 등 난민 110만 명을 수용토록 했다.

> 우리의 통일 준비에는
> 어떤 가치가 담겨져 있을까?
>
> 통일은 억압과 빈곤에서
> 2천4백만 북한동포를 해방시키는 일이다.
>
> '통일대박'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어지는
> 보너스일 뿐이다. 가치가 우선이다.
>
> 그렇지 않고서 맞이하는 통일은
> 고통의 연속이 될 뿐이다.

미국은 6 · 25 전쟁에 연인원 178만 명을 파병해 5만 명 전사 및 실종, 10만 명 부상이라는 큰 피해를 입었다.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는 "조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at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at they never met)"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것이 국가다. 이 힘이 오늘날 미국 힘의 원천이다. 미국은 이들의 희생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기린다. 서독은 통일을 돈과 거래하지 않았다. 다만 헌법적 가치에 충실했을 뿐이다.

우리의 통일준비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져 있을까? 가치에는 무관심하고 주판알 튕기듯 통일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다. 통일은 많은 희생을 요구한

서독은 자유통일,
베트남은 무력적화통일,
예멘은 합의통일 후 내전과 재분단 위기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어떨까?
모두가 주목하고 있지만
해답은 역사 주관자의 손에 달려있다.

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통일을 이루는 것은 정말 힘이 든다. 제기되는 문제도 많고, 돈도 많이 드는 통일을 굳이 왜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청소년이 있는 한 통일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루어낼 수 없다. 통일은 정치적 억압과 빈곤으로부터 2천4백만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는 일이다. '통일 대박'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어지는 보너스일 뿐이다. 가치가 우선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통일은 고통의 연속이다.

역사는 우리 편인가?

분단에서 통일을 이룬 세 나라.

'서독', '베트남', '예멘'은 모두 분단국이었다. 하지만 세 나라의 통일은 3국 3색이다. 서독은 자유통일, 베트남은 무력적화통일, 예멘은 합의통일 후 내전 그리고 재분단 위기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어떨까? 모두가 주목하고 있지만 해답은 역사 주관자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로라 하시더라"(계1:8)라고 말씀 하셨다. '알파'는 천지창조이고, '오메가'는 예수의 재림이다.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 사이의 시간이다. 한강의 기적, 평양대부흥의 기적을 허락한 역사의 주관자가 이제 또 다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만행, 독재정권 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절규, ICBM이나 6차 핵실험 등과 같은 인류를 향한 도발 등을 꼼꼼히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남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북한을 탈출해 해외를 유랑하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있는가? 국내에 정착한 3만 여명의 탈출자들의 적응은 어떤가? 2천4백만 북한동포를 구출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가? 통일의 의미는 이해하고 있는가? 통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을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내려질 처방이 우리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마침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긴장 속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다. 6차 핵실험은 일어날지, ICBM 도발이 이어질지, 트럼프의 선제공격이 실현될지, 한미동맹이 지켜질지,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될지, 미중·한중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다만, 역사가 우리 편이기를 기도하자.

※ 본 칼럼은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5/20일자 발행)

글 |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로 연세대와 베를린 자유대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前 명지대 교수와 통일교육원 원장을 역임하였다.